사사기 19. "종교적 부패 1. 미가의 제사장" [17 장 1 절-13 절]

1. 들어가기

사사의 이야기는 지난 16 장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끝으로 더 이상 사사기에는 등장하지 않고, 대신 17 장을 시작으로 마지막 21 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타락의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7 장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집에 있던 은 1100 개를 도둑맞은 후 가져간 사람을 저주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은을 가져간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아들 미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는 그 저주가 아들 미가에게 가지 않기 위해 그 은의 일부를 사용해 우상을 만들고 미가의 집에 두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들 미가는 그 우상을 모셔둔 신당을 위해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게 되었고, 이때 우연히 유다 베들레헴에 머물던 한 레위 청년이 거주지를 찾아 다니다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 방문하게 되면서, 결국 미가와 레위인 청년은 계약을 맺고,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 17-21 장의 사건들은 사사 삼손이 죽은 뒤의 이야기인가?

대부분의 학자들 = 17-21 장은 삼손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이야기라기 보다는, 사사 시대 전체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 하나를 저자가 특별히 선택해서 에피소드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사사 기드온 이후에 일들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어난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3.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 (1-2a 절)

1) 미가의 이름의 뜻

- ‘미가’ - 원어로는 “미카예후” 라는 말로,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 혹은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누구냐?” 라는 뜻!
- 곧 이름 자체만 보면 매우 경건해 보이고, 이런 이름을 지어 준 부모의 믿음을 기대하게 만듦.
- 특별히 에브라임 산지는 당시 법계가 있던 실로와 아주 가까운 지역으로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경건한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2) 미가는 어머니의 은 1100 개를 훔쳤습니다.

- 영어 성경 KJV, NIV 등은 은 1100 세겔 이라 표현.
- 1 세겔은 11.4g / 당시 일반 노동자의 4 일 임금에 해당.. 곧 은 1100 세겔은 요즘 가치로 따져보면, 시급=\$15, \$15x8 시간 x4 일 = \$480 =1 세겔. 대략 \$500.000
- 미가의 어머니는 이렇게 큰 돈을 (은) 도둑맞은 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였습니다.
- 그러자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두려워하여 자신이 가져간 것을 자백하며 은을 어머니께 돌려주었습니다.

➤ **생각하기 1. 죄를 범한 후의 미가의 잘못된 태도.**

- ① 어머니의 은을 훔친 후에 어머니가 상심하여 돈을 찾을 때에도 모른척함!
- ② 저주의 말이 나올 때까지 자기의 행위를 숨기다 그 저주를 무서워해서 돌려줌..
- ③ 돌려준 뒤에 어떤 잘못도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모습이 없음!!

참고: 율법의 규정에 따른 미가가 취해야 할 태도..(레 6:1-7 절)

- ① 훔친 돈의 1/5 을 더하여 돌려주어야 함.
- ② 흠 없는 수양으로 속건제를 드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함.

■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어떤 이유로든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여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결코 모른 척 넘어가지 말고, 신속히 죄를 회개하며 흠 없는 수양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깨끗함을 얻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4. 미가의 어머니의 모순. (2b-4 절)

1) 미가가 은을 돌려주자 어머니는 미가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구했습니다.

- 먼저 어머니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보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 자식이 하나님께 저주보다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곧 부모의 마음일 듯..
- 그러나 바른 부모는 잘못을 감싸고 무작정 용서하고 품기보다는, 내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기에 더욱 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못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할 줄 믿습니다.
- 반대로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에게 나쁜 일이 생기니 앞뒤 상황도 따져보지 않고 여호와와 이름을 걸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또 다시 일이 해결되고, 또 그 일에 자식이 연루되니 여호와와 이름을 걸고 축복하는 신앙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런 행동은 한마디로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것이란 사실을 성도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2) 미가의 어머니는 돌려받은 은을 아들을 위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면서,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 너무나도 모순된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음!!
 - ① 여호와께 다 드릴 것처럼 말하고선 900 개는 취하고, 200 개만 여호와를 위해 드림.
 - ② 그 200 개로 여호와를 위한다고 한 것이 우상을 새기고 만들었다는 것
- 입의 고백과 행함이 얼마나 모순되는 지를 발견 - 곧 17 장의 주제는 모순!!

➤ **생각하기 2. 미가의 어머니가 만든 우상은?**

- 두 가지 종류의 우상 - “페셀”이라 불리는 새겨서 만든 우상과 “마세카”라 불리는 부어서 만든 신상.
- 페셀 (새겨서 만든 우상)은 나무, 돌을 새겨서 거기에 보석과 금으로 장식한 조각상을 말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아세라 목상과 같은 이방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마세카 (부어서 만든 신상)은 금으로 입힌 우상으로 성경 속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고 이후 뱀엘과 단에 있었던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생각할 수 있음.
-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금송아지를 사람들이 만들고 섬길 때, 그들이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섬겼다는 사실!!

곧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이방신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며 하나님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도 여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신도 함께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모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잘못과 모순된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에봇과 드리빔을 만들고, 나아가 스스로 한 아들을 선택해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5 절)

- 여기 신당이라 표현된 단어의 원문은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되어 있음!
-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겹옷으로 우림과 둠밈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되었고, 드리빔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정에 모셔놓고 섬기던 사람 모양이나 뱀 모양의 우상으로 사람들은 병이 났을 때나 장래 일을 알고 싶을 때 드리빔을 섬기며 능력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 출야급기 28 장 1-5 절은 오직 제사장은 제사장 반열에 있는 레위인만이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곧 미가는 어머니가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자기 집 신당에 두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입니다.
- 참고로 어떤 학자는 이것이 미가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또한 마을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종교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예: 기드온=자기 집에 에봇을 갖다 놓자 자기 집만 섬긴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전체가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사실..)

6. 미가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6 절)

6 절, “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

- 이 모든 것의 근본원인은 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 사사기의 중심주제!!
- 그러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나요?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계셨고, 그 사실을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저들을 구원하시며 알게 하시고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죽고 살만하면 다시 죄악 가운데로 돌아서서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사실!!

7. 미가의 집에 한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헬에서부터 찾아 왔습니다. (7-8 절)

- 참고 : 민수기 18 장, 여호수아 21 장의 레위지파 사람들에 대한 분배
 - ☆ 하나님은 레위인들은 일반적인 생업을 가질 수 없는 대신 각 지역의 지파들에게 십일조를 받아 그것으로 성막을 섬기고 생활하게 했음. (민 18 장)
 - ☆ 이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레위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48 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였음.
 - ☆ 그 이유는 영적으로는 각 지역에 흩어진 지파들의 종교적 리더로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소위 목양의 일을 담당하도록 했고, 정치적으로 왕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흩어져 있다 하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되고 연합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착해 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음.
 - ☆ 참고로 어떤 학자는 가나안 정착 당시 이스라엘 인구 중 대략 장정 남자를 60 만명으로 추정하고, 그들 중 레위인은 약 2 만명 정도라고 말하며, 이를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 40 명이 레위인 한 명을 보살피는 구조로, 경제적으로 오히려 레위인들이 일반 백성들보다 평균적으로 4 배 이상의 수입이 생기게 되는 구조라고 주장함.. 그리고 이 수입을 통해 레위인들은 성막의 일을 감당하며 그 지역의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 해석.

- 그런데 여기 유다 베들레헬의 레위인은 살 거처를 찾아 가나안 전역을 헤 메이다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 곧,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1) 미가는 그가 살 곳을 찾는 것과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0 절)

- 그런데 미가는 이 청년이 레위인이란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혹시 미가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요 섭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신이 여호와를 위해 신당을 열자마자 레위인을 이렇게 자기에게 보내어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 우리도 살면서 무턱대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무조건 맞추려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먼저 맞추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 2) 미가는 레위인 청년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책임져주고, 일 년에 은 10 개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레위인 청년을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 미가의 신앙도 문제이지만 그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레위인의 신앙도 얼마나 타락되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 그가 하나님께 구별된 레위인이라면, 자신이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는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미가의 제안에 반응했어야만 하는데, 그저 먹고 사는 문제와 물질의 유혹 앞에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형편없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 3) 미가는 레위인 청년의 화답을 기뻐하고 만족하며, 아들처럼 여기며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 **생각하기 3. 미가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 여호와와 이름과 성소와 예뵈이며, 제사제도며, 제사장과 레위인이까지 다 완벽하게 갖추어 놓았다고 생각했기 때문.
곧 종교적인 제도는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것!!

➤ **생각하기 6. 오늘 내용을 통해 개인적으로 깨달은 내용이나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우리도 여호와와 이름을 말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모이고, 여호와와 이름으로 모든 거룩한 제도의 형식들까지도 다 취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그것이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되는 순간 우리도 미가의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아닐지 고민해야 할 것..

아무리 정통 기독교의 형식을 취하여서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고 실상은 다른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